

〈올해의 시〉

〈학생 우수작〉

너를 부르마

정*성

청포도

1-2 전*용

(원작 : 이육사 '청포도')

제 10회 시낭송 축제

시(詩)랑 사랑

시와 사랑에 빠지는 밤

너를 부르마
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하마
아무데도 보이지 않아도
내 가장 가까운 곳
나와 함께 숨쉬는
공기(空氣)여
시궁창에도 버림받은 하늘에도
쓰러져 너를 일으켜서
나는 숨쉬고 싶다
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
이 땅이 나를 버려도
공기여, 새삼스레 나는 네 이름을 부른다
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
그 이름을 잘못 불러도 변함없는 너를
자유여.

내 고장 십일월은
급식들이 활발해지는 시절
100여년 전통을 가진 좀비같은 급식충들이 일어나고
먼 데 밥알이 춤추며 입속으로 밥알들이 들어가 박히고
그릇 안 미역국에 MSG가 가득한 초록 바다가 가슴을 연다
따뜻한 밥이 곱게 준비가 되면
내가 바라는 손님드는 잠결에 막 갠 몸으로
교복(校服)을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
내 그들을 감시하며, 두 번 먹는 애들을 골라내면
급식판은 부족하지 않으리
분홍색 가운을 입은 그대여, 우리 식탁 급식판에
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마련해두렴

언 제? 2017년 12월 13일

어디서? 백주년 기념관

누 가? 신흥고 1학년

주 최 : 전주신흥고등학교